

各學界의 當面課題

顎顏面成形外科學界의 當面課題

大韓顎顏面成形外科學會 會長

醫學博士 鄭 淳 廣

大齒協으로 부터 本學界的 當面課題를 말해 달라는 어려운 附托를 받고보니 문득 여러가지 生覺이 떠 오른다 그러나 그 보다도 本人이 平素에 實際 느꼈던 몇 가지 問題點 即爲先 強調해야 할 事項들을 말하고자 한다.

大體 顎顏面成形外科는 二次大戰 때에 많은 歯科醫師들이 顎顏面損傷에 對한 治療에 좋은 成果를 올렸다는 산 經驗과 顎顏面領域이 歯科醫學領域에 그 大部分이 關聯되어 있으며 一般外科醫나 成形外科醫만이 處置하는 것보다는 齒牙 및 顎骨에 對하여 能通하고 따라서 그 機能回復에 더욱 完璧을 期할 수 있기 때문에 歯科醫에게 그의 取扱乃至는 處置의 責任이 賦課되는 同時に 그 發展에 功있기를 期待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周知하는 바와 같이 舊은 歯科醫가 좋은 技術을 가지고 開拓 및 좋은 機能回復을 併伴하는 處置에 貢獻한바 至大함은 누구나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인 것이다.

또 다른 面으로 볼때 本學會는 歯科醫學領域에서 一派 齒中心의 外科가 있다면 이와는 다른 面을 가진 顎骨 및 顎面骨의 損傷을 為始한 여러가지 Major Surgery 외과도 一般外科, 成形外科가 있듯이 成形外科의 特色도 가진 所謂 歯科外科의 一分科라고 할 수 있으며 同時に 大齒協會拿하에 單只 둘 밖에 없는 歯科外科學會의 하나인 것이다.

마침 이 原稿을 쓰고 있는데 日本口腔外科學會雑誌가 郵便으로 配達되어 왔다. 그 雜誌에서 눈에 띠우는 것이 歐美的 口腔外科를 보고 온 所感이 야기(高橋氏) Vol. 15, No. 1) 및 學部에 있어서 口腔外科學의 教育에 瞩하여 (藤岡氏 Vol. 15, No. 3)라는 意味의 卷頭言이었다. 그 内容을 簡單히 紹介한다면 歐美 九個國을 巡訪했는데 美國에는 小口腔外科處置를 中心으로 하는 入院室이 없는 歯科外科와 그 보다 더 큰 處置를 하는 歯科外科의 두 種類가 있는데 그中 小口腔外科處置만을 하는 歯科外科만을 보고 왔고, 그 大學에서는 入院을 要하는 顎顏面外科에 對해서는 學生을 一定期間 General hospital에 派遣해서 見學을 시킨다고 했으며 所謂 大口腔外科處置를 하는 歯科外科를 보지 못한 것 이 大端히 簡潔하게 生覺했다고, 하였고 西獨의 歯學

部에서는相當히 많은 大口腔外科를 볼 수 있었고 (Double Doctor가 有利) 그 制度는 口腔外科 또는 顎顏面外科의 發達에 對하여 큰 役割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日本을 볼 때에는 特히 學會에서 그 演題中 大口腔外科에 關한 것이 많은 現象이며 口腔癌 및 脣口蓋破裂患者의 大部分이 口腔外科를 專門으로 하는 분들에 依하여 取扱되었다고 生覺되며 따라서 그와 같이 口腔外科를 開拓하고 發達에 貢獻한 많은 先輩들의 努力에 對하여 感謝함과 아울러 敬意를 表하는 同時に 先輩가 開拓해 놓은 現在의 口腔外科의 診療範圍를 守護하고 發展시키는 것이 口腔外科를 專攻하는 사람들의 責任이라고 強調했고 또 나라가 다르면 制度도 다르고 또 時代의 變遷에 따라 制度도 變化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했고 그 結論으로서 많은 歯科醫師가 行하는 所謂 歯科外科에 一層 힘을 쓰는 同時に 많은 先輩들이 發展시킨 現在의 口腔外科의 診療範圍를 維持하고 이 것을 後輩에게 傳함이 이를 專攻하는 사람의 큰 責任으로 生覺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以上은 남의 말도 믿고 尊重하고 좀더 큰 眼目을 가지고 보고 또 여기의 나의 意見은 決코 個人이 만들어 낸 根據없는 意見이 아니고 同時に 顎顏面外科에 對한潮流에 對하여 남의 말을 引用함으로써 그 實感을 느낄 수 있겠기에 가까운 日本의 例를 들어 參考에 資한 것이다.

이와 같은 特性을 가질 뿐더러 所謂 모든 應急 또는 災難에 對處하여 所要되는 이 顎顏面外科는 歯科醫 또는 歯科醫學教育에 不可缺한 歯科外科에 하나임에 繼하여 볼때 顎顏面成形外科 自體의 學術의in 向上에 앞서 그의 知識乃至 實技에 있어서 좀더 많은 關心을 가지고 어떤 特定 歯科醫만에 局限하지 말고 많은 會員의 積極的인 參與가 要望되며 또 以上 말한 바와 같은 見地에서 各學會의 格別한 後援協助下에 相互紐帶를 強化하고 各界著名學者 諸位의 再認識 및 協助가 또한 本顎顏面成形外科 學會를 育成發展시킬 수 있는 또 나아가서는 모一은 歯科醫의 權益의 確保 및 이 方面의 開拓 및 發展에 貢獻한 사람들의 功을 言이 하지 않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歯科醫學 全體의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當面課題라고 本人은 生覺하는 바이다.